산지동향

규격화 고시의 파장으로 인한 중간상인들의 매입의욕 상실로 경기는 아직 회복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군다나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물동량도 지난달에 비해 급격히 감소.

본격 수확기에 접어 들면서 약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달 중순경까지는 하한가에서 맴돌 전망.

◇작약 : 현재 산지가는 2천5백원선, 국내 생산량 만으로도 물량은 충분하며 향후 15년 동안은 꾸준한 보합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산지 농민들은 전망.

◇백지 : 상승세. 지방에서 4천원~5천원선에 거래는 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으며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는 1개월후에나 확실한 가격선이 결정될 것이라고. 올 가뭄피해로 인해 햇것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량을 감안하면 올 한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우슬 : 현 산지가 4천원선. 본격 수확시기에 접어들어 물량 많아지면서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하향곡선이 계속될듯.

<전남 보성군 정형모 지부장 제공>

◇황기 : 생것은 1천8백원~2천원으로 조금 오름세를 보인 반면 마른 것은 7천원 하던 최상품 가격이 6천5백원 선에서 주춤. 이는 올 가뭄피해로 작년에 비해 1천원 상승가격이긴 하나 연말연시의 영향으로 거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

<경기도 포천군 이인기 사무소장
강원도 정선군 조광호 사무소장 제공>

◇당귀 : 햇것이 막 출하되던 초창기 6천5백원 하던 산지가격이 현재 5천원~5천3백원선(통)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도 부진한 상황.

이유는 가뭄피해로 인해 종자나 물량이 부족하긴 하나 지난해 재고가 절당귀로 해서 5천2백원~5천3백원인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농자금을 상환키 위해 물건을 내놓는 농민들은 많지만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

<강원도 평창군 함영완 사무소장 제공>

◇강활 : 현 산지가 6천원~6천5백원. 7천원 하던 상품 가격이 6천5백원으로 6천5백원 하던 중품이 6천원으로 각각 내림세. 시세가 그리 좋지 않아서 심기도 많이 심지 않은데다 가뭄에 생산량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구입하는 사람도 드물어 거래 부진한 상황.

<강원도 평창군 함승주 공판장장 제공>

◇산수유 : 6천5백원~6천7백원선이던 산수유 산지가는 현재 7천원~7천2백원선.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매년 30만근 이상 수확되던 것이 올 여름 한해로 인해 수확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하가 계속되는 이달 말까지도 가격선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전남 구례군 정일영 사무소장 제공>

약초농사 포기해선 안된다 <上>

기고

생약재는 국민보건차원 농산물
무분별수입, 생산기반 붕괴 우려

성낙술 —— <농진청 약용작물과>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초의 종류는 70여종류나 된다. 그러나 약초의 재배면적을 1만5천여평 정도로 봤을때 우리나라 논 면적의 1%정도, 밭면적의 약 2%에 해당되는 정도의 작은 규모이며 또한 1백60만 농가중 3.5%에 해당하는 6만여 농가가 약초재배에 참여하는 정도이므로 이것만으로 보았을 땐 우리농지에서 약초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고 그러기에 국민의 관심이나 정책지원에서도 무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약초라고하는 작물은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나가서는 국제경쟁력등의 산술적 수치만 가지고 평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첫째가 국민의 보건차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약초의 이용역사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대들이 동양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위업과 그 결실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활용되고 있다.

약초란 그 이용목적이 식량작물과 달라 인류의 건강유지 또는 질병치료의 목적에 사용되는 농산물이다. 본래는 산야에 자생하던 것을 채취하여 사용하다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아직도 산야에서 재취하는 품목이 허다하다.

요즘 국제가격경쟁에서의 일위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양이 중국등지로부터 무절제하게 수입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조사보고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생약조사비교연구」에 따르면 수입약재 이용에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백출, 창출을 비롯한 16개품목(조사대상 1백58품목중)이 양국간 기원식물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둘째, 당귀와 일당귀 같이 함유성분상에 차이가 있는 품목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양국이 생약재를 오용, 오칭하는 사례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한약재(생약재)의 종류는 4백가지를 웃도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약재마다에 현대의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마당에서 동양 3국의 견해가 다르다면 우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용해 내려온 우리의 생약재를 써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될 수 있다.

둘째는 자원의 보존과 생약재의 안정적 공급차원을 들 수 있다. 생약재 마다의 품질은 차치해 놓고라도 가격경쟁만을 이유로 수입이 확대되고 우리농가의 재배기반이 붕괴된다면 머지않아 수십여종의 재배화된 작물은 흔적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요즘은 국가간 자원경쟁의 시대이다. 자연상태에서 멸종돼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서는 비록 소규모라도 재배에 의한 관리이다. 현재 야생상태에서 채취되고 있는 약초도 시급히 재배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약초재배를 포기했을 때 우선은 중국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우리의 소비량이 충당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국이라고 자원의 귀중함을 모를바 아니고 그들이라고 수십년 후까지 그렇게 싼 값으로만 우리에게 약재를 공급해줄리가 만무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밀 살리기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년도에 우리나라의 밀재배는 9만7천정보로 국민소비량의 20%정도를 자급하고 있었으나 사료용곡물(?)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84년 부터는 정부의 밀수매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판로가 막힌 농가에서는 재배를 포기, 91년에는 고작 1백64정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사라져야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경남 고성의 두호마을에서 24농가를 주축으로 발화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점차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현재는 14만 회원의 동참으로 우리밀의 재배면적이 2천6백여 정보까지 확대되고 있다. 퍽이나 다행이다. 우리밀은 왜 살려야 하는가? 자원전쟁, 식량안보, 건강위협으로 부터의 탈피등 결국에는 왜 우리가 약초재배를 포기해서는 안되는가 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도 이미 시장경제 도입이후 수년사이에 임금의 상승, 지가의 상승등의 이유로 생약재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은 가까운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과연 연간 5만여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그들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셋째로 농가의 소득측면에서도 약초는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곡작물에 비해 규모는 비록 적지만 현재 규모만으로도 총생산액(소수익)으로 비교하면 미곡생산액 1조7천억의 15%에 해당하는 2천5백억정도가 약초농사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천연물호라고 하는 국제적 추세는 생약재의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고 각종 의약제재의 개발 및 한방의료의 확대로 그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원은 물론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이유에서 약초재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우리가 약초재배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나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많다. 이제부터는 농가가 이처럼 중요한 약초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소비자, 생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수확요령

<강원도 평창군 함승주 공판장장 제공>

황기

10월하순~11월중순 사이에 잎과 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면 수확한다. 잔뿌리가 적고 곧게 내려간 것은 줄기를 쥐고 뽑는 방법으로 수확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줄기를 베고 곡괭이나 삽으로 캔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확하면 하루에 1천평 가량 수확이 가능하다.

캐낸 뿌리는 흙을 털고 물에 씻어서 대칼로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하면 노력이 많이 들므로 돌 같은데 문질러 껍질을 벗기기도 하지만 요즈음에는 수세박피기를 이용하여 벗긴다.

뿌리가 건조되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므로 땅에 묻어 놓거나 물에 담가두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긴것은 단시일안에 건조시키는 것이 껍질이 희고 깨끗하여 상품성이 높다. 80~90% 건조되었을 때 간추려 묶어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저장하거나 출하하도록 한다.

종자수확

황기는 개화기간이 60일이상 계속되어 수확적기를 포착하기 힘들지만 대개 10월상중순경 서리가 내리기 전 줄기를 20㎝정도 높이에서 베어 작은 단으로 묶어세워 말린다.

정선된 종자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1~2일 음건시킨 다음 보관하여 다음해 파종용 종자로 사용한다.

구기자

구기자의 수확은 정식 당년부터 가능하다. 8월하순부터 11월중 하순이 수확적기이다. 대체로 잘 익은 것부터 수시로 수확하는데 햇볕 또는 화력건조 한다.

구기엽을 목적으로 재배한 것의 수확은 1년에 4~5회에 걸처서 베어낸다. 수확적기는 새싹이 30~40㎝ 자랐을 때이다. 50㎝이상 자라면 가지가 목질화되어 베어내기도 힘들지만 절단, 조제가 곤란해지고 품질도 상품이 되지 못한다.

구기엽으로 쓸 것은 베어낸 직후에 2㎝정도로 절단해서 반쯤 마를때까지 햇볕에 말린 후 통풍이 좋은 곳에서 음건한다. 영리재배시에는 화력건조기를 사용하여 다량처리를 하면된다.

구기엽과 구기자를 같이 수확하여 가정에서 사용코자 할 때는 구기엽 수확을 7월초순까지 한다. 다음에 나는 싹은 50~60㎝정도 자랐을 때 순지르기를 해주고 엽액(葉腋)에서 단과지의 발생을 유도시켜 주면 늦여름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10~11월에 걸쳐 과실이 붉게 익는 것부터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에서 화력 건조시킨다.

지골피는 구기자나무의 뿌리를 캐서 깨끗하게 물로 씻고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인데 8월중순 이후에 채취한다.